

11월 1주
생명보다 소중한 것

- **본문 말씀:** 시편 63:3~4 (11월 2일 본문)
- **포인트:** 죽을 것 같은 고난 속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생명보다 귀해요.

것

≡ 1. 찬양

(새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 2. 기도

하나님, 저희 가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말씀 속에서 세상을 살아갈 힘과 지혜를 얻게 해 주세요.

≡ 3. 말씀

시편 63:3~4을 함께 읽습니다(말씀을 3번 읽으세요).

* 말씀을 다른 번역으로 반복해서 읽으면 내용을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개역개정판 성경>

3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4 이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우리말 성경>

3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기에 내 입술이 주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4 이렇게 내가 살아 있는 동안 주를 찬양하고 주의 이름 때문에 내 손을 들어 올릴 것입니다.

<단어 설명>

* 인자: 하나님의 성품으로 사랑에서 우리나라오는 친절

≡ 본문 이해

시편 기자는 자신을 찾아 멸하려는 원수들 때문에 메마른 광야로 도피했어요. 그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사랑)이 자신의 생명보다 소중하다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이예요. 하나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할 수 있어요.

□ 인도자를 위한 본문 이해

63편에는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라는 표제가 붙어 있어요.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9절)이라는 표현에서 시편 기자가 원수들에게 쫓겨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지은 기도시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힘들고 곤궁 한 상황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갈망하며 과거에 평안했던 시절을 회상해요(1~2절). 메마른 땅이 단비를 기다리듯 수척해진 그의 육체와 영혼이 주님을 갈망하고 앙모해요. 무엇보다 그는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던 때, 그분의 권능과 영광을 경험하던 때를 목상하며 영적 은혜를 사모해요. 메마른 광야에서도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사랑)이 자신의 생명보다 나음을 확신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깊은 사귀이 없다면 그의 삶은 아무 의미가 없음을 그는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 사랑으로 뜨거워진 시편 기자의 영혼은 메마른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고 기쁘게 찬양해요. 그리고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손을 들고 기도하겠다고 서원해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시 63:1~2).

≡ 4. 나눔

1)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소중하다는 사실을 아는 시편 기자는 자신이 살아 있는 동안 무엇을 하겠다고 했나요?(4절)

■ 저학년

하나님의 인자하심(사랑)을 노래하는 지은이는 살아 있는 동안 무엇을 하겠다고 다짐했나요?(4절)

■ 유아·유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시편 지은이는 살아 있는 동안 무엇을 하겠다고 했나요?(4절)

□ 질문 가이드

생명보다 귀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한 시편 기자는 먼저 자신의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고백해요. 그리고 살아 있는 동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다짐해요.

□ 인도자를 위한 해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라고 확신했어요. 그는 자기 생명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고 소중함을 잘 알았어요. 그래서 황폐하고 메마른 광야에서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했지요. 그는 구원을 소망하는 지금 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 있는 동안’ 곧 평생 동안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인자하심이 그의 험한 인생길에 늘 함께할 것을 확신하기 때문이에요.

2) 나는 어떤 때에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분이라고 느끼나요? 각자의 생각을 나누어 보세요.

■ 저학년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과 같다고 느끼나요? 이런 나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하는 찬양은 무엇인가요?

■ 유아·유치

내가 가장 좋아하는 찬양은 무엇인가요? 그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느껴지나요?

□ 질문 가이드

최근에 경험했거나 묵상하면서 깨닫게 된 하나님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고,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잘 표현한 찬양도 함께 불러 보세요.

□ 인도자를 위한 해설

시편 기자처럼 생명을 위협받는 상황이 아니더라도 어려울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한 적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베푸신 크고 작은 은혜를 늘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해요. 들판에서 양을 치던 어린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해 곰과 사자를 이겼던 경험이 쌓여 결국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까지 물리쳤듯이, 우리 믿음의 경험이 쌓이고 쌓이면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나요.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사랑임을 날마다 고백해 보세요. 작은 어려움뿐 아니라 죽을 것 같은 엄청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분의 인자하심을 노래할 수 있을 거예요.

≡ 5. 감사하기

나의 삶에서 지금까지 크고 작은 은혜로 함께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세요.

≡ 6. 기도

하나님, 저희가 고난 속에 있을 때 더욱더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사람 되길 원합니다. 사람과 환경을 탓하기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사랑)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알아 가고, 하나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하게 해 주세요.

-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가정예배를 마칩니다.

≡ 7. 가족 미션

매일 감사드리기

<감사 메모장 만들기> *준비물: A4용지(가족 수대로), 가위 혹은 칼, 필기도구 *참고: <https://naver.me/5AfGw3fn>

1. A4용지를 길게 반으로 접습니다.
2. 길게 접은 상태에서 다시 반으로 접고, 그 상태에서 한 번 더 반으로 접습니다(펼치면 네모 모양 칸 8개가 나옵니다).
3. 종이를 펼쳐서 가로(짧은) 방향으로 반을 접은 후, 막혀 있는 쪽의 한 칸을 가위로 자릅니다.
4. 종이를 다시 1~2번 순서대로 접은 후, 칼집 낸 곳을 대각선으로 어긋나게 접습니다.
5. 종이를 펼쳐서 양 끝을 잡고 안쪽으로 밀어 십자 모양을 만듭니다(책 모양으로 접힌 메모장이 됩니다).
6. 맨 앞장에 '감사 일기'라고 적고, 나만의 감사 일기 표지를 완성합니다.
7. 매일 다섯 가지 이상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내용을 적습니다.
8. 일주일 후(다음 가정예배로 모일 때) 서로의 일기를 읽으며 감사 제목을 풍성하게 나눕니다.

매일매일 우리 삶을 감사로 채울 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더 잘 깨닫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릴 때 고난을 이겨 낼 굳센 믿음이 세워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라요.

* 주일예배 준비하기

가정예배를 마친 후에는 함께 주일예배를 준비합니다.

1. 부모는 자녀에게 주일의 중요성과 예배의 소중함을 일깨워 줍니다.
2. 마음으로 주일예배를 준비합니다.
3.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주일에는 가급적 다른 일을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헌금을 정성스럽게 준비합니다.
4. 단정한 옷을 준비합니다.
5.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주일예배가 되도록 기도합니다.